

I. 주간 경제 동향

1. 경제 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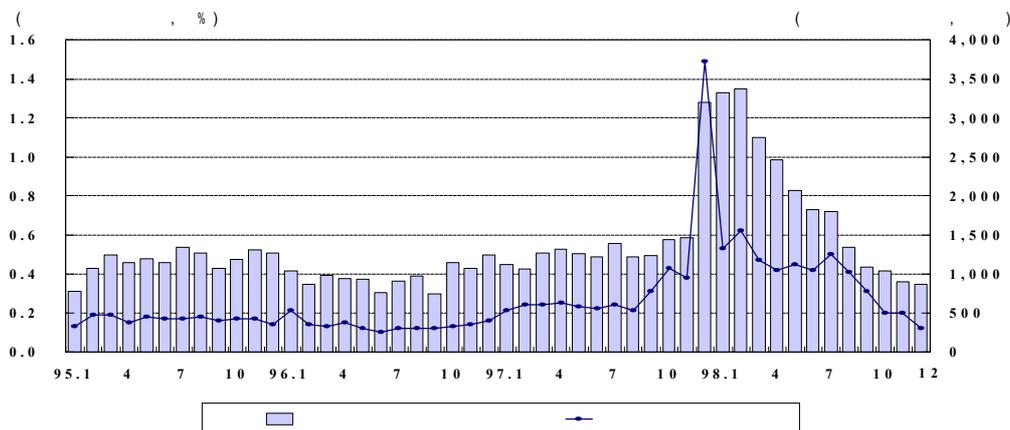
□ 12월 중 어음부도율 동향

경기회복 기대감, 신용경색 완화 등의 영향으로 96년 9월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

- (현황) 98년 12월 중 전국 어음부도율(금액 기준)은 전월(0.20%)보다 0.08%p 하락한 0.12%로 96년 9월(0.12%) 이후 최저수준을 기록

- 이는 최근 신규 부도업체수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데다 금리 하락과 중소기업 대출 증가 등으로 기업 자금사정이 점차 개선되고 있기 때문
- 지역별로는 서울이 전월의 0.16%에서 0.10%으로, 지방이 전월의 0.55%에서 0.33%로 모두 하락세를 나타남
- 98년 12월 중 부도업체수(당좌거래 정지업체 기준)도 전월에 비해 41개가 줄어든 862개로 96년 9월(740개)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한 반면, 7대 도시의 신설법인 수는 2,093개로 지난 94년 10월(2,445개)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함

< 최근 어음부도율 및 부도업체수 추이 >



- (평가) 향후 실물 경기의 회복세 가시화 기대

- 최근의 어음부도율 감소세는 그간 도산할 기업은 이미 도산한데다, 워크아웃 등 구조조정 프로그램의 영향으로 기업 도산 자체도 줄어들고 있으며, 신용경색이 부분적으로 해소 조짐을 보이면서 기업자금 사정이 점차 개선되고 있기 때문임

주간 경제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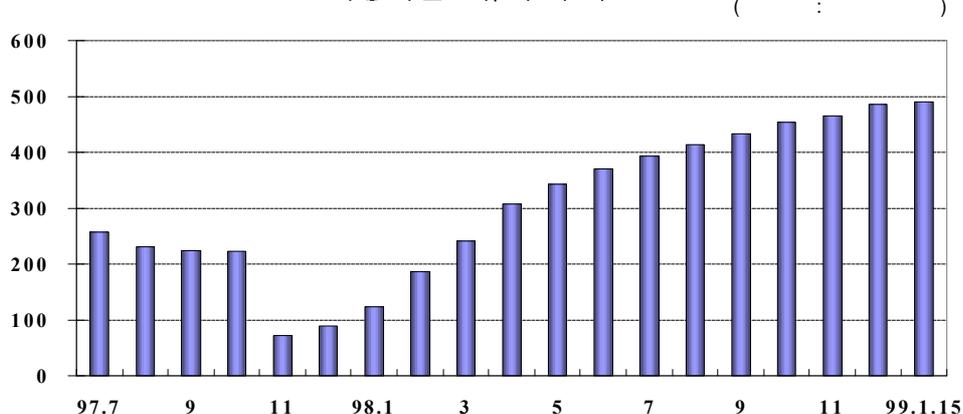
- 특히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신설 기업이 크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함. 98년 12월중 7대도시의 부도법인수에 대한 신설법인수의 비율은 96년 6월 (7.2배) 이후 가장 높은 7.0배로 상승

□ 외환보유액 동향

IMF 지원 자금의 일부 상환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들의 한은 지원 외화예탁금 상환에 따라 가용외환보유액은 490억 달러로 증가

- (현황) 99년 1월 15일 가용외환보유액은 490억 달러
 - 99년 1월 15일 현재 외환보유액은 525.1억 달러이며 이 중에서 국내은행 해외점포 예치금 등을 제외한 가용외환보유액은 490.0억 달러로 98년 11월말에 비해 4.9억 달러 증가
- (감소 요인) IMF로부터 지원받은 보충준비금융(SRF, Supplemental Reserve Facility) 자금의 1월중 만기도래분 상환(10.6억 달러)
- (증가 요인) 금융기관의 긴급결제 부족지원자금으로 예치되었던 한은 지원 외화예탁금을 상환받고, 달러 약세로 기타통화표시 외화자산의 美 달러화 평가액이 확대
 - 금융기관들이 97년 11~12월중 한은으로부터 지원받은 긴급결제 부족자금 (232.9억 달러)중 총 201.2억 달러가 상환됨. 이에 따라 99년 1월 15일 현재 잔액은 31.7억 달러로 감소함

<가용외환보유액 추이>



□ 금융시장

원/달러 환율은 브라질 사태 이후 신흥시장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1,180원대로 상승. 금리는 단기 저점 인식 속에 추가 하락에 대한 한은의 부정적 입장, 브라질 사태 등으로 상승. 주가도 600선이 붕괴되었으나 브라질 사태 진정으로 재상승 시도

- (외환시장) 원/달러 환율은 1,180원대로 상승

- 지난 주 중반까지는 정부의 환율 방어 의지와 외국인 주식투자자금 유입 둔화, 은행 및 기업의 달러 대기 물량 등 상승과 하락 요인이 혼조를 보이면서, 1,170~1,175원대에서 제한적 등락을 거듭하며 보합세를 지속함
- 그러나 브라질 사태 이후 신흥시장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외국인이 주식 매도세를 보임에 따라 원/달러 환율이 장중 한때 1,190원대로 상승함. 기업체의 결제 수요와 일부 투기적인 매수세도 환율 상승 요인으로 작용
- 하지만 선진국의 지원으로 국내외 금융시장이 안정세를 보이면서 달러화 과다 매수 세력들이 매도에 나서 하락세로 반전됨. 그러나 공기업 등의 결제 수요로 하락폭은 제한되어 원/달러 환율은 1,180원대를 기록. 1월 18일 현재 1,181.5원

- (자금시장) 금리 상승세로 반전해 8%대에 근접

- 금리가 단기 저점에 달하였다는 인식이 확산되는 가운데 추가금리 하락에 대해 한국은행이 부정적 입장을 보임에 따라 금리가 상승세로 반전됨
- 브라질 레알貨 평가절하 사태로 인한 국제금융시장의 위기감 고조, 외평채 가산금리 상승 등도 불안심리를 자극해 시장에 부담으로 작용
- 1월 18일 현재 3년만기 회사채 유통수익률은 7.89%를 기록

- (주식시장) 브라질 사태의 영향으로 폭락한 뒤 다시 상승을 시도하는 중

- 브라질 사태에 대한 불안감과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 매물 출회로 주중 한때 600선이 붕괴되기도 하였음
- 하지만 선진국과 IMF의 개입으로 브라질 사태가 수습될 조짐을 보이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 기조 복귀, 급락에 따른 반발 매수세, 모건스탠리社가 한국을 신흥시장중에서 5대 투자선호국으로 지정하는 등의 영향으로 반등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채 창 균 ckche@hri.co.kr ☎724-4031)